

일본 성풍속점 종사자에 관한 문화기술지

류 영 진*

목차

- | | |
|-------------------|----------|
| I. 들어가며 | IV. 연구결과 |
| II. 풍영법과 종사자에 대하여 | V. 마치면서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

Ⅰ 국문초록 Ⅰ

본 연구는 일본 성풍속점 종사자의 일상과 그들의 인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일본의 성풍속업은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실상은 잘 알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풍영법이라는 법의 테두리에 있으면서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미묘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종사하는 이들의 인식을 외부로부터의 시선이 아닌 내부로부터의 시선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직 한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일본의 성풍속업에 대한 선행적인 이해를 위하여, 풍영법이라는 법률과 현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성풍속점은 국가로 부터는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의미짓고 있으면서 동시에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관련된 콘텐츠들이 빈번히 양산되는 등 법제와 사회 사이의 미묘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일본의 성풍속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라 종사자

* 기타큐슈시립대학교 지역전략연구소 특임강사

논문접수일 : 2018. 7. 12., 심사개시일 : 2018. 8. 2., 게재확정일 : 2018. 8. 21.

들의 수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성풍속점 종사자들의 상황을 내부로부터 고찰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실제로 성풍속점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질적 방법론인 문화기술지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2014년 1월부터 시작되어 4년에 걸쳐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심층면접과 집단면접, 관찰, 문헌수집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성풍속점 종사자들에 대하여 ‘경제적 동기’, ‘자기인식’, ‘불안요소’ 라는 3가지의 중심개념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출 가능한 간단한 시사점들을 덧붙였다.

주제어 : 풍영법, 성풍속점, 성풍속점 종사자, 문화기술지

I. 들어가며

한국사회에서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로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환기되었다. 또한 동법이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직업교육,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국가의 책임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¹⁾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매매는 근절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과 성매매가 일종의 노동이며 이에 대한 억압이 생존권, 노동권, 인권에 대한 억압이라는 입장이 충돌하게 되는 상황도 야기되었다.²⁾ 성매매특별법 제정 당시 여성주의자들은 도덕적 프레임에 맞서 젠더(여성인권) 프레임을 관철하기 위해 고심했으며, 성노동 관점이나 당사자

1) 이나영, “여성주의 ‘성노동’ 논의에 대한 재고”, 『경제와 사회』, 2009, 제84호, 132-133면.

2) 고정갑희, “매춘 성노동의 이론화와 성/노동/상품의 위계화”, 『경제와 사회』, 제81호, 2009, 113-114면.

여성의 주체성, 행위성 문제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³⁾ 그리고 이 논의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성풍속관련특수영업(이하 성풍속점)’ 종사자들의 일상 속에서의 인식을 이해 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연구로서, 문화기술지라는 질적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로젠과 벤카테시가 시카고의 매춘부들 사회에 직접 접촉을 시도하여 그들의 맥락(context)에서 출발하는 연구에서, 매춘부들을 단순히 빈곤, 정책, 사회문제, 지지(advocacy) 등의 시각에서 보는 건 간단하다고 지적했다.⁴⁾ 성매매특별법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점 그 자체는 잠시 미뤄두더라도, 지금까지의 접근들이 너무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너무 위로부터의 접근이 아니었는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한 가지 시각을 제공하는 것에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성풍속점은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등에 관한 법률(이하 풍영법)’ 내부에 명기된 하나의 업종으로 상품화된 섹슈얼리티가 직접적으로 거래되는 업종이다. 현재 일본의 성풍속점은 소위 완전한 근절과 노동으로서의 성매매 사이의 미묘한 부분에 걸쳐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제II장에서 설명하게 되겠지만, 풍영법 내에서의 성풍속점은 언설 상으로도 인정과 비인정 사이의 모호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은 일본의 사회적 인

3) 오김숙이, “젠더·노동 프레임과 여/성노동자의 재현-성매매특별법 제정 후 페미니즘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제27권, 제1호, 2017, 18면.

4) Eva Rosen·Sudhir Alladi Venkatesh, “A “perversion” of choice: Sex work offers just enough in Chicago’s urban ghetto”,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Vol.37, No.4, 2008, p.419.

식과도 궤도를 같이 하고 있다. 성과 성풍속점 종사자에 대한 긍정이 문화적 콘텐츠(AV, 예능, 드라마 등)로서 지속적으로 생산되면서도 그 종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낙인이 존재한다. 한국 사회 역시 성에 대한 이중적 잣대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성매매 특별법 이후에도 성매매시장의 규모가 아직까지도 세계적인 수준임을 생각해 본다면,⁵⁾ 일본의 성풍속점의 사례는 한국 사회에 던져 줄 수 있는 시사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II. 풍영법과 종사자에 대하여

1. 풍영법에 대한 개괄적 검토

풍영법은 1948년 ‘풍속영업취체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제정된 것을 시초로 하고 있다. 이후 1959년 4월 1일 ‘풍속영업등취체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되었고, 1984년 현재의 법률명으로 개정되었다. 이 법률의 기본적인 목적은 풍속영업이라는 업종을 다른 업종들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범위로서 정의하고 이에 대하여 ‘적정화’를 도모한다는 것에 있다. 여기서 적정화라 함은 ‘추천하고 장려해야만 하는 기준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단, 풍영법이 포함하고 있는 ‘풍속영업’이라는 업종은 사실 그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다. ‘풍속영업’이라고 하는 업종의 개념은 풍영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정의되고 있다. 주요한 기준은 접대와 유흥

5) 암시장(Black Market) 전문 조사업체인 미국 ‘하보스코프 닷컴(Havocscope)’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5년 현재 한국의 성매매 시장은 120억 달러 규모로 세계 6위에 랭크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avocscope.com/prostitution-revenue-by-country/>”를 참조.(검색일자 : 2018년 7월 4일)

또는 음식의 제공, 10룩스 이하의 저조명 영업, 외부로부터 시야가 차단되고 동시에 객실의 넓이가 5평방미터 이내인 구획석음식점, 사행성 영업으로 나누어진다. 이 기준에 의하여 커플카페, 심야식당, 파칭코, 오락실 등도 모두 풍속영업법의 대상으로 포함되게 된다. 이들 풍속영업은 다시 세부적으로 ‘특정유흥음식점영업’, ‘심야(0시~6시) 주류제공음식점 영업’ 등으로 나누어진다. 본 절에서는 지면상의 문제로 풍영업의 구체적인 구별을 모두 설명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기에, 본 문화기술지 연구에서의 연구 대상이 되는 성풍속점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성풍속점은 2005년 다른 풍속영업들과는 다른 분류로 처음 구별되게 되었다. 풍영업 제2조 5항과 6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 ‘무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 ‘영상송신형성풍속특수영업’, ‘점포형 및 무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이라는 4가지로 나누어 정의되고 있고, 이중 점포형과 무점포형 성풍속특수영업의 경우에는 제1호 영업부터 제6호 영업까지 분류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표 1>⁶⁾과 같다.

성풍속점들은 자신들의 점포 소재지 지방정부의 공안위원회에 영업신고를 내고 영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부분은 풍영업이 지정하는 다른 여타의 풍속영업점들이 ‘허가’를 요하는 것과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풍속영업점 중에서 성풍속점만이 신고제이고 다른 업종들은 허가제라는 것이다. 신고는 개인의

6) 본 내용은 지면 관계상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필자가 정리 작성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일본 전자정부 시스템 e-Gov의 풍영업 부분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3AC0000000122&openerCode=1#F”(검색일자 : 2018년 7월 4일)을 참조. 한국의 성매매특별법은 일본의 성풍속점 중에서도 1호와 2호와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표 1> 풍영법 상의 성풍속특수영업 분류

구분	정의	예 ⁷⁾
▶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		
제1호영업	목욕장 시설에 개별실이 구성되어 이성 손님의 성적호기심에 응한 성적 접촉이 제공되는 영업	소프랜드
제2호영업	개별실이 구성되어 이성 손님의 성적호기심에 응한 접촉이 제공되는 영업	패션헬스
제3호영업	성적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의복을 벗은 모습을 보여주는 공연 등이 제공되는 영업	스트립극장
제4호영업	이성을 동반하는 손님에게 숙박 및 휴게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	러브호텔
제5호영업	성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이나 물품을 판매하는 영업	성인용품숍
제6호영업	성적 호기심 만족을 위한 교제나 면회, 대화를 위한 장소 및 기회를 제공하는 영업	만남형чат집
▶ 무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		
제1호영업	주거시설 또는 숙박용 시설에 있어서 이성의 손님의 성적 호기심에 응한 접촉을 제공하는 영업	데리바리헬스
제2호영업	점포형의 제5호 영업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영업	온라인성인숍
▶ 영상송신형 성풍속특수영업	성적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성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장면 또는 의복을 벗은 영상을 보여주는 영업	성인사이트
▶ 점포형전화 이성소개영업	면식이 없는 이성과 성적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교제 및 회화 등을 점포내의 통신시설을 통하여 주선하는 영업	텔레폰클럽
▶ 무점포형전화 이성소개영업	점포형전화이성소개영업과 같은 서비스에 대하여 통신기반을 제공하는 영업	투스닷다이얼

7) 일본의 점포구분은 지면 관계 상 모두 설명하기가 힘들만큼 상당히 다양하고

일방적인 행위이기에 국가에 의한 허가, 다시 말해 공인된 권위가 부여되지 않는다. 성행위를 동반하는 서비스는 일부일처제에 반하는 ‘본질적으로 도덕상 좋지 않은’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풍영법을 통해서 국가가 추천하고 장려해야만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⁸⁾

실제로 풍영법 안에서도 성풍속점에 대한 조문들은 ‘명령’이 아닌 ‘금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⁹⁾ 또한 풍영법 제4조에 의하면, 행위의 주체인 ‘공안위원회’는 풍영법 내에 지정된 위법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영업정지를 명령해도 좋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단정적인 언설을 피하며 상당히 모호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풍영법을 직접 적용해야하는 경찰에 의하면 풍속영업은 적정히 운영된다면 국민들에게 휴식과 오락을 제공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업¹⁰⁾으로서 이해되고 있는 상황이다.¹¹⁾ 즉, 법률이 실제로 운용되는데 있어서는 인식의 측면에서 간격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다.

2. 성풍속점과 종사자 현황

일본의 경찰백서에 의하면, 점포형의 성풍속점은 점점 줄어가는 추세이며, 반대로 무점포형의 경우는 증가경향에 있는 것을 알 수

세분화 되어 있으며, 서비스의 내용도 철저히 분화되어 있다.

8) 蔭山信, “注解風営法 I”, 東京法令出版株式会社, 2008, 26-27면.

9) 예를 들어 일반 풍속영업점의 경우는 ‘상업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설립해야 한다’라고 규제가 명기되어 있는 반면, 성풍속점의 경우에는 ‘학교 근처에서 설립하여서는 안된다’, ‘주거지역에 설립하여서는 안된다’와 같은 형태로 서술되어 있다.

10) 菊澤信夫, “生活安全局発足後の風俗環境の変化について”, 「경찰학논집」, 제58권 제1호, 2005, 86면.

11) 동시에 1958년 일본에서 ‘매춘방지법’이 시행된 것을 생각해 본다면, 법상에서의 성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상당한 모순점이 있다고도 보여 진다.

있다. 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개별실 형태의 점포를 구비하지 않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점포의 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른 경제규모에서 성풍속점이 차지하는 비율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야노경제연구소에 의하면 러브호텔, 소프랜드, 패션헬스, 데리바리헬스 분야에만 한정해서 시장규모를 계산한 결과, 2014년 3조 5,775억 엔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규모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2.1%에 달하는 성장규모이다.¹²⁾ 구체적인 점포수의 현황은 <표 2>¹³⁾와 같다.

<표 2> 성풍속특수영업의 신청건수 추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점포형 성풍속특수영업	6,208	8,835	8,685	8,501	8,373	8,186	8,000	7,862
제1호영업	1,238	1,246	1,235	1,218	1,224	1,219	1,215	1,217
제2호영업	836	822	824	813	810	810	785	780
제3호영업	139	125	116	110	98	94	93	100
제4호영업	3,692	6,259	6,152	6,027	5,940	5,805	5,670	5,537
제5호영업	303	272	252	232	206	169	159	150
제6호영업	—	111	106	101	95	89	78	78
무점포형 성풍속특수영업	16,983	18,336	19,257	19,986	20,491	20,843	21,123	21,398
제1호영업	15,889	17,204	18,119	18,814	19,297	19,591	19,856	20,116
제2호영업	1,094	1,132	1,138	1,172	1,194	1,252	1,267	1,282

12) 矢野經濟研究所, “アダルト向け市場徹底研究 2016”, 2016, 15면.

13) 警察署 “警察白書”, 2017, 2018의 인터넷 통계 참고. “<https://www.npa.go.jp/publications/whitepaper/>”(검색일자 : 2018년 7월 4일)

성풍속점에 종사하는 여성 종사자의 명수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파악되고 있지는 않다. 한 점포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이 천차만별이며,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또는 계약직의 형태로 고용계약이 맺어지기 때문에 점포의 정직원으로서 수치에 잡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단,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공표된 종사자 정보와 경찰백서에 공개된 점포수에 근거한 추계에 의하면, 현재 일본 전국에는 약 30만 명 정도의 종사자가 안정된 수치로서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하나의 점포에 평균 29명 정도의 종사자가 소속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¹⁴⁾ 일본 법무성의 ‘부인보도원통계¹⁵⁾’에 따르면 성풍속점 종사자들의 평균 종사기간은 1965년에 7.7년, 1975년에 9.3년, 1988년 9.8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飯田와 荻上에 의하면 현재 평균 종사기간은 보수적으로 추정하여 약 10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¹⁶⁾ 만약 평균 종사 기간이 10년이라고 할 경우, 일본 국내에서는 매년 3만 여 명의 새로운 종사자들이 탄생하며, 3만 여 명이 은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현대 일본 여성의 약 3.6%~5.4%는 기간과 횟수에 상관없이 종사자로서 성풍속점을 경험하게 된다고 추정 되며, 20~29세의 여성 20명 중 1명은 성풍속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¹⁷⁾ 성풍속점에 처음 진입하게 되는 연령의 비율은 18~22세가 가장 많으며, 이어서 28~32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⁸⁾

14) 飯田泰之, 荻上千キ, “夜の経済学”, 扶桑社, 2013, 39면.

15) 부인보도원은 매춘방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여성들 중 징역형이 아닌 보도처분(한국의 보호지도 처분)을 받은 20세 이상의 여성들이 입소하게 되는 법무성의 교정시설이다. 이곳에 입소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통계들이 수집되었는데, 그 중 성적 행위를 매매한 경험 년 수도 포함되어 있다. 단, 2000년대에 들어 오면서 입소자가 거의 없어져 유효한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6) 飯田泰之, 荻上千キ, 앞의 책, 42면.

17) 飯田泰之, 荻上千キ, 앞의 책, 44면.

재단법인 Grow As People의 조사에 의하면, 성풍속점에 진입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53.66%)’가 가장 많았으며, ‘어쩌다 보니(15.08%)’가 다음으로 많았다.¹⁹⁾ 진입의 동기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어쩌다 보니’와 같이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흘러들어와 버린 경우도 존재한다. Grow As People의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角間는 성풍속점 종사자들에 대한 미디어의 접근이나 실천가들의 접근이 너무도 일괄적이라고 지적한다. ‘성풍속점 종사자 = 빈곤과 불행’이라는 등식으로 성풍속점종사자들의 모든 상황을 치환시켜 버린다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사회가 짚은 낙인에 종사자들을 가두는 것이 되다며, 종사자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시각에서 다양성에 기초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성풍속점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한 달 간 평균 실근무일수는 11.8일이며, 1일 수입의 평균치는 36,525엔으로 나타났다.²⁰⁾ 2017년을 기준으로 20대 일본여성의 평균 1일 수입이 8,739엔 정도임을 고려하면 상당한 고수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분석과정에서 설명하게 되겠지만 과연 이 수익이 진정한 고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문화기술지연구는 특정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 또는 그에 소

18) 角間惇一郎, “風俗嬢の見えない孤立”, 光文社, 2017, 118면.

19) 경제적 이유도 세부적인 내용은 생활비, 학비 및 장학금 변제, 채무 등으로 스펙트럼이 넓었다. 자세한 내용은 角間惇一郎, 앞의책, 119면을 참고.

20) 角間惇一郎, 앞의책, 122면.

속되어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기술하고 해석하는 방법론이다. 양적 방법으로는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전체적인 맥락에 대하여 파악해 볼 수 있는 해석학적인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성풍속점 종사자들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접근은 그 절대적인 수에서도 부족하지만, 그나마 존재하는 것들도 정부의 통계적 데이터 또는 일상의 도덕적 인식에서 기반한 것들이 대부분임을 생각해 볼 때, 문화기술지적 접근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당사자들의 의식을 묘사하는 탐색적 작업으로서 문화기술지 방법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 연구 참여자와 주요지역

이 연구의 주된 참여자들은 풍영법이 정의하고 있는 성풍속특수 영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종사자들이다. 성풍속점의 경우는 경영이 유 상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점포형의 경우에는 점포 내부에서의 녹음 및 기록 행위 등이 모두 통제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풍속점 종사자라는 조건 이외에는 아무런 조건을 설정하지 않았고, 최초 연구 참여자(카렌)를 중심으로 소개를 받아 연구 참여자를 늘려 나가는 ‘스노우볼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를 확보하였다. 주된 연구 참여자는 <표 3>과 같다. 표에 제시된 연구 참여자 이외에도 전체적인 자료에 일시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약 17명 정도이다.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지역은 일본 후쿠오카시의 나카스(中洲)라는 곳으로 제한되었다. 이는 연구자의 접근성이 이유이기도 하지만 나카스라는 지역이 가지는 상징성과 규모 때문이기도 하다. 나카스는 후쿠오카현의 나카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강 양측 1킬로미터 정

<표 3> 연구참여자 기본 정보

구분	연구 참여자 ²¹⁾	연령	성별	종사업종	종사 업소수	종사 경력	개인사
핵심 정보 제공 자	카렌	37	여	소프랜드	2개	15년	부모 이혼 후 중학교 중퇴 현재 자영업 위해 준비 중
	미카	28	여	소프랜드	1개	9년	싱글마더. 슬하 1남 갑상선 종양을 앓고 있음
주요 정보 제공 자	소라	30	여	테리라비 헬스	1개	6년	싱글마더. 슬하 1남 1녀
	노아	22	여	세크카바	1개	2년	중증 류마티즘 숙모와 동거
	미이	24	여	소프랜드	1개	2년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거주 현재 자영업 위해 준비 중
	쥬리	25	여	테리바리 헬스 멘즈에스테	2개	4년	우울증인 남자 친구와 동거 2회 자살 시도

21) 본 문화기술지 연구에서는 Richardson 과 Pierre가 제안한 창조적분석과정기술법(creative analytic process ethnography)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번이나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가명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직접인용이 등장할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자세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Laurel Richardson와 Elizabeth Pierre, "WRITING: A Method of Inquiry", SAGE Publications, 2005, pp.959-976. 참고. 또한, 본 가명들은 일본의 풍속업 종사자들의 관례상 자주 사용되는 예명들로 연구 참여자들의 요청으로 선택되었음을 밝혀둔다.

도의 구역을 말한다. 이곳은 규슈최대의 환락가로 불리며, 도쿄의 신주쿠 가부키쵸, 삿포로 스스키노와 함께 일본의 3대 환락가로 불리는 곳이기도 하다. 나카스에는 음식점과 풍속점을 모두 합쳐 약 3,500개의 점포가 있고, 종사자만 3만 여 명에 달하며 1일 평균 방문자가 6만 명에 달한다.²²⁾ 환락가로서 유명한 지역인 만큼 다양한 성풍속점이 몰려 있으며 성풍속점 종사자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이기에, 징후 포착에 적절한 지역이라고 판단하였다.

2. 자료수집, 서술 및 분석

본 연구는 2014년 1월을 기점으로 처음 시작되어 약 4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문화기술지적 자료의 정리와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주로 수집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풍속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면접을 통하여 얻은 자료, 둘째, 성풍속점 종사자들의 출퇴근 시간대에 동행 및 성풍속점 밀집지를 도보로 이동하며 얻은 관찰자료, 셋째, 주요 정보제공자들의 생애사 자료, 넷째, 성풍속점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업무 관리를 위하여 기록한 수첩, 업무스케줄표 등 2차 기록물, 다섯째, ‘겔즈 헤븐’, ‘퓨어러버’ 등 온라인 홍보사이트와 전단지 및 안내 잡지에 게재되어있는 개인 홍보문구, 블로그, 일상일기, 사진 등의 자료들이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성풍속점은 상당히 폐쇄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로인해 외부에서 관련 종사자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 핵심 정보제공자의 경우에는 최대 16회 이상의 개별면접이 가능하였지만 이외에는 1회에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연구자가 퍼실

22) 자세한 내용은 나카스관광협회 “<http://www.nakasukankou.com/about.html>” 참조(검색일자: 2018년 7월 4일).

리테이터로서 참여한 3회의 집단면접도 가능하였다.

3. 연구의 질 검증과 윤리적 이슈

연구의 타당성의 확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로 Spindler가 제시한 문화기술지 연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기준²³⁾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첫째, 1차적으로 분석된 결과물을 연구 참여자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하여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 참여자들은 잘못된 서술이나 해석을 검토하였고 수정을 해주었다. 더하여, 외부에 의한 묘사를 읽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자기 객관화 과정을 통하여, 분석에 대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상호이해도도 향상되었다.

둘째, 다원적 검토과정이다. 정보제공자들의 진술을 공통된 관점으로 통합하면서 동시에 개별면접자료, 관찰자료, 기록물 등을 비교하여 모순되는 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분석결과에 있어서도 각 해석이 특정 자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반복적으로 검토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에서부터 생성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작업을 거쳤고, 의식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고려해야만 하였던 윤리적 이슈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성폭속점 종사자들에 대하여 본 연구의 취지와 연구 방법론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업무상의 지장과 익명성의 철저한 보호를 약속하고 최종적으로 연구에의 참여를 동의한 경우에만 연구 참여자로서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료의 수집과 분석

23) Louise Spindler, *Interpretive Ethnography of Education at Home and Abroad*, Psychology Press, 1987, pp.81-97.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정보가 직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였으며, 연구결과에서도 참여자들의 정보공개는 사전 양해를 통하여 허락이 된 범위까지만 공개하고자 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일본의 성풍속점 종사자들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이다.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상을 그려내고 진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과 관찰을 중심으로 하여 종사자들의 하루 동안의 업무 모습을 간략히 묘사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들의 범주화 작업을 통하여 진입과 지속, 자기인식, 불안이라는 3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1. 성풍속점 종사자들의 업무

성풍속점의 경우에도 다양한 종류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이며 모두 근무의 형태가 다르다. 본 절에서는 가장 성적인 교환 관계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분류되어 있는 제1종과 제2종을 중심으로 묘사하고자 한다.

성풍속점 종사자들의 업무 시작 시간은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풍영법에서 정해놓은 영업가능 시간인 오전 6시부터 밤 0시까지의 시간대 중에 ‘오전반’, ‘오후반’, ‘통시’ 라는 세 분류로 보통 나누어져 시작되게 된다. 오전반의 근무는 오전 6시부터 낮 12시, 오후반의 근무는 낮 12시부터 밤 0시까지의 근무이다. 통시는 아침 6시 출근부터 저녁 0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통시의 경우는 축제

기간이나 휴가기간 등 손님이 많아질 경우에 자주 배정되게 된다. 출근하는 모습은 모두가 각양각색이다.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나카스의 경우는 성품속점 종사자들이 신치의 바로 옆 동네인 ‘하루요시(春善)’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하루요시는 ‘나카스 언니들의 마을’로서 불린다고 한다. 자가용이나 오토바이로 출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출근하게 되면 자신들의 출근시간을 출근부에 기록하고, 자신에게 배정되어 있는 업소 내의 1인실로 이동한다. 일부 업소들의 경우에는 싱글마더 종사자를 대상으로 탁아소나 유치원을 함께 운영하거나 제휴를 맺어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이를 먼저 맡기고 출근하게 된다.

종사자들은 자신의 방에서 업무시간 동안 생활하며 손님이 없는 동안에는 완전히 자유시간으로 지낼 수 있다. 1인실의 환경도 각 업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6m×6m 정도의 공간이 목욕시설과 다용도실 형태로 이분되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목욕시설에는 욕조와 샤워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일체의 목욕도구들이 구비되어 있다. 다용도실에는 TV와 침대를 비롯하여 에어컨, 냉장고, 온수기, 다기, 옷장, 화장대, 테이블, 전자레인지, 책상, 의자 등이 마련되어 있고, 카펫과 융단 등으로 바닥을 마감하여 둔 곳이 많다. 조명은 직접 종사자가 단계별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화장실과 세탁실 등은 공용시설로서 따로 마련되어 있다. 다용도실의 경우에는 보통의 원룸과 거의 시설에 차이가 없기에 일부 종사자들은 1인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머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²⁴⁾

24) 물론 이는 나카스를 주 업무 지역으로 하는 연구 참여자들에 의해서 묘사된 환경이다. 연구 참여자 중 후쿠오카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도시인 기타큐슈시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는 나카스의 반 토막 정도의 넓이

1인실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업무가 끝날 때 까지는 외부로 나오는 것이 차단되기는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점에 있어서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일본은 풍영법으로 성풍속점의 호객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가 직접 점두에 나올 필요가 없다. 통신에 있어서도 아무런 제약이 없고, 만약 음식을 부탁하거나 필요한 용품이 있을 경우에는 ‘보이’²⁵⁾라고 불리는 보조원들이 상시 대기하며 심부름 역할을 하게 된다. 1인실 내에서 주로 TV를 보거나 책을 읽고 대여해 온 DVD를 보는 등 개인 시간을 보내게 된다. 최근에는 노트북을 가져와서 유튜브 등을 보는 것이 주류라고 한다.

또는 개인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연구 참여자들 중에서는 에스테 살롱 오픈을 준비하면서 관련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 낮에는 초등학교에서 워크숍을 한다는 한 정보제공자는 워크숍을 위한 꽃꽂이, 종이접기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통신학교에 등록해서 건축 관련 학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도 있었다. 사실 ‘시간’은 성풍속점 종사자들에게 있어서 수익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원이다.²⁶⁾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는 완전히 자유로운 개별 공간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손님들의 방문 유형은 보통 사진지명, 넷지명, 전화예약 등으로

의 방에 상당히 낙후된 시설인 곳도 제법 있다고 알려주었다.

25) 이 보이들도 아르바이트 또는 정직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성풍속점의 경우는 개인 영업자가 아닌 법인의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국적으로 점포를 전개하는 기업형들이 상당히 많다. 나카스 내에서도 보통은 한 경영자가 3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영업점포에 따라 보이들의 고용형태나 삶의 형태도 상당히 다양하다. 보이들은 기본적으로는 종사자들의 1인실의 수리 및 보수, 청소, 심부름 등을 하고 불상사에 대비하여 종사자를 보호하고 손님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26) 角間惇一郎, 앞의책, 149~150면.

분류된다. 지명이라고 함은 자신이 직접 대상자를 선택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사진 등 사전 자료를 보고 그에 기반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명료라는 명목으로 1000~2000엔 정도의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지명을 하지 않는 경우를 업계에서는 ‘프리’라고 부르며 이 경우 지명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진지명은 직접 업소 또는 안내소²⁷⁾라는 곳을 방문하여 입구에서 현재 출근한 종사자들의 사진을 보고 선택하여 입점하게 되는 방식이다. 넷지명은 업소의 홈페이지 또는 중개 사이트에서 종사자들이 직접 올린 블로그나 일기를 보고 인터넷으로 시간을 예약하여 방문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전화예약은 말 그대로 전화로 시간을 예약하고 방문하는 시스템인데 시각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기에 손님이 자신의 희망사항을 말하면 업소 측에서 그에 맞춰 출근한 종사자들 중 누군가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무점포 형태의 경우에는 인터넷과 전화로 밖에 손님을 접수하지 않는다. 종사자에 대한 지명이 끝나면 이어서 이용시간을 결정하게 된다. 점포에 따라서 시간의 설정은 40분~240분까지 다양하며, 30분 기준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손님의 입점이 결정되고 배정을 받게 되면 손님은 업소 내에 마련된 대기실로 이동하게 되고, 1인실로 연결된 인터폰을 통하여 손님에 대한 기본 정보가 전달된다. 어떤 형태의 예약으로 입점했는지 몇 분 코스를 선택했는지 등이 전달된다. 종사자는 연락을 받게 되면 내부 정리 및 환복,²⁸⁾ 화장점검, 온수의 온도 체크 등을 하면

27) 안내소는 풍속영업 밀집지에 다수 설치되어 있는 일종의 중개 안내소이다. 각 업소들과 제휴를 맺고 있으며 사진을 비롯한 정보들 비치하고서 찾아온 손님의 조건에 맞춰서 제휴업소 중 한 곳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28) 성풍속점 종사자들의 의상은 업소 주변의 전문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업소에서 마련해주는 옷들이 있지만 보통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매력에 가장 적절한 옷으로 2~3벌 정도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옷의 가격은 보통 3,000~6,000엔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서 약 20여 분 간 준비를 하게 된다. 준비가 완료되면 종사자는 인터폰을 통하여 프런트에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고 ‘보이’가 손님을 안내하게 된다.

이때 종사자와 손님이 처음 만나게 되는 경계점이 마련된다.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에 커튼 등을 통하여 분리된 공간을 마련하는데 손님은 이 경계를 넘어가면서 처음으로 종사자와 대면하게 되며 응대는 ‘보이’에서 종사자에게로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

정해진 시간 동안의 접대가 끝나게 되면, 종사자는 인터폰으로 손님이 돌아감을 알린다. 손님은 종사자의 안내를 받아 처음 만나게 되는 경계지점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보이’에게 인도되어 업소를 나서게 된다. 접대를 마친 종사자는 다시 1인실을 정리하고 사용된 타월 등을 세탁실로 보내는 등 약 20여 분에 걸쳐서 뒷정리를 해둔다. 만약 연속으로 손님을 받게 되면 뒷정리시간은 그대로 다시 준비시간이 된다. 한 명의 손님에 대한 응대가 끝날 때 마다 프런트로부터 해당 응대에 대한 계산용 전표가 종사자들에게 전달된다. 이것은 종사자들이 퇴근하기 전에 자신들의 수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업소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전표에는 손님의 입점시간, 이용한 코스, 금액, 연장여부 등이 기록되어 있다. 종사자들은 이 전표를 기준으로 수익상황이나 경향 등을 파악한다.

이와 같은 과정이 몇 번인가 반복되고 지정된 업무시간이 종료되면 1인실의 간단한 뒷정리를 한 후에 퇴근하게 된다. 퇴근 시에 당일의 수익이 계산되어 직접 지불된다. 즉, 일급으로 지불된다. 주급이나 월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종사자의 의견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일급이 선호된다고 한다. 출퇴근 기록부에 기입을 마치고 퇴근을 하게 되면 각자의 방식으로 귀가하게 되며, 만약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보이상이 동행하게 된다. 가끔 업

소 밖에서 손님이었던 남성들이 스토커가 되어 기다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상적인 업무와는 별개로 사진촬영 등 기타업무로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사진촬영은 프런트에 걸리게 되는 자신의 홍보 사진이나 넷상에 공개되는 이미지 사진들을 촬영하는 것인데 전체 비용은 업소에서 모두 부담한다. 전문 사진가가 업소로 오기도 하며 가까운 러브호텔 등을 빌려서 촬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보통 3~4달에 한번 정도씩은 사진 촬영이 있다고 한다.

2. 진입과 지속

“우리는 특별하죠. 풍속양(후우조쿠쵸, 風俗嬢)이니깐요. 하지만 그렇게 불린다는 게 특별 한 거지 사는 건 별달리 특별한 게 없어요.” 연구자가 처음 카렌을 만나서 면접을 시작하며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였을 때 돌아온 대답이었다. 흔히 사회과학에서 성매매 등에 관련된 이슈를 다룰 때 대부분의 접근들이 연구대상자의 배경, 환경,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는 동기에서 출발하여 성매매라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 왜 이일을 시작하였을까? 라는 물음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카렌의 대답은 그러한 접근법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한 마디였다.

앞서 개념적인 검토에서도 다루었지만 성풍속점에 진입하게 되는 종사자들의 진입 계기는 상당히 다양하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최초 진입 계기도 “다른 직장에서 모두 퇴짜를 당하고(노아)”, “월세를 낼 수가 없어서(카렌, 소라)”, “양육비가 필요해서(미카, 소라)”, “숙모의 치료비와 생활비(노아)”, “성에 관련된 일에 관심이 있어서

(미이)”, “친구를 따라 면접을 봤다가 우연히(주리)” 등 모두 그 이유가 다양하였다. 이해를 위하여 하나의 사례만을 자세히 소개해보자면, 소라의 경우에는 네일살롱에서 일을 하다가 매장이 폐점하면서 직장을 잃게 되었고 때마침 당시 사귀던 연인 사이에서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기의 아버지가 잠적하여 연락이 닿지 않게 되었고 임신 상태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출산 이후 경제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된 상황이었고, 설상가상으로 갑상선에 종양이 발견되어 치료도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마침 자체 보육소²⁹⁾를 제공하는 성풍속점의 모집공고를 보고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언뜻 이 사례를 듣게 되면 “빈곤이 원인으로 성풍속점(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불행의 전형”³⁰⁾으로 보이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틀로서만 한정하는 시선은 종사자들을 “단순히 경제적 이해에 따르고 있는 원자적 개인으로 간주”³¹⁾ 해 버리는 우를 범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분명 경제적인 동기는 성풍속점 종사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진입의 계기로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앞서 角間도 지적하였듯이 경제적 이유에만 집중하여 성풍속점 종사자들을 바라보는 것은 그들을 빈곤의 피해자로서 결정짓는 외부자적 시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학계의 사회과학자들은 매춘의 주요한 동기가 경제적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점에서 놀라운 정

29) 쿠루메라는 지역의 한 업소의 경우에는 경영자가 성풍속점과 유치원, 탁아소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다.

30) 角間惇一郎, 앞의책, 83면.

31) 이현재, “성노동자들의 인정투쟁과 윤리적 지평의 확장-민주성노동자연대의 거주생존권/노동권 주장에 대한 인정 이론적 담론화”, 『한국여성학』, 제25권, 제2호, 2009, 78면.

도로 순진하다”³²⁾는 하킴의 지적처럼, 경제적인 동기 그 자체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직, 월세, 양육비, 치료비, 생활비 등³³⁾ 경제적인 이유라고 하는 하나의 틀 안에 다양한 키워드들이 발견되고 있고, 돈으로 대표되는 경제적인 이유는 소라의 진술에서처럼 다양한 이유들의 복합적 전개 위에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표상과 같은 것이다. 특정 경제적 리스크가 도래 하였을 때에 가장 높은 소득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확보할 수 있는 일을 택하는 것은 경제학적 의미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직장의 선택 동기와의 틀리지 않다.

결국 중요해지는 점은 ‘지속’의 동기라고 할 수 있다. 미이의 사례처럼 성에 대한 일에 관심이 있었다거나 주리의 사례처럼 무서워하는 친구를 따라서 면접에 갔다가 친구는 떨어지고 자신은 우연히 합격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거나 하는 경우는 그 동기가 쉽사리 설명되기 어렵다. 즉, 진입의 계기로서 성풍속점 종사자들의 상황을 구분하고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의 일상과 인식은 진입의 계기보다는 지속되는 현재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인 동기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오히려 성풍속점이 제공하는 고수익은 초기 과제인 경제적인 문제를 일시에 타파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 여행을 떠나고 싶은 대학생이 짧은 시간에 수입이 좋은 막노동판에서 일 주일 정도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동기로서 참여한 이후에 그것을 멈추는 것도 개인의 결정에 달

32) 캐서린 하킴, 매력자본, 이현주 역, 민음사, 2013, 232-233면.

33) 기타 다양한 연구참여자들로부터 학비, 여행비, 채무변제 등 여러 경로의 경제적 이유들을 들을 수 있었다.

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속이라는 키워드는 경제적인 이유와 결합이 되면서 현재적 금전성과 미래적 금전성의 문제로 분류된다. 분명 성풍속점은 다른 여타 직군에 비해서 고수익이며, 이것은 여타 풍속업 내에서도 그러하다. 성풍속점 안에서도 제1종과 제2종 사이에서는 1.5배 가까운 수익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수익이라는 매력에 대해서, 당면한 금전 과제의 해결이나 지금 보다 더 높은 보수를 위해서라는 막연한 목표로 접근했을 경우, 지속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장기적인 전망이 결여된 당면적 금전성은 수동적지속성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³⁴⁾

“자립하고 싶으면서 오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 진짜 2년 정도 만에 집도 마련하고, 차도 한 대 장만하고 하지만 사실 그게 더 문제야. 이제 그 집 집세랑 자동차 유지 하려면 일을 더 하면 더했지 줄이지는 못하거든(미카).”

미카의 진술에서 드러나듯이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지만 그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고 목표를 위해 고수익을 바라는 것이 아닌 고수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역전 현상, 수동적지속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시간이 지속적으로 흐를 경우에는 새로운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지게 된다. 小澤와 岡野는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자신의 상황이 가장 편하다라는 심리적 회피기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며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을 점점 더 어렵게 한다고 설명한다.³⁵⁾

34) 小澤千咲, “女性性産業従事者における職業に対する態度の形成および変容プロセス—M-GTAおよび心理検査を用いて—”, 国際医療福祉大学 박사학위 논문, 2015, 65면.

35) 小澤千咲, 岡野憲一郎, “性産業従事者(commercial sex worker)に見られる心理的傾

카렌의 경우 자신이 처음 집을 가지게 된 경험을 설명하면서 “정말 마약 같은 경험”이라고 회상하였다. 카렌의 경우 오토바이를 좋아하여서 3대까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지내다보니 다른 것들은 생각지 못한 채 10여 년이 흘렀고,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인테리어 관련 자영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집을 나와서 자영업을 준비하는 가게 겸 주택으로 규모를 줄여 이동하였고, 오토바이는 모두 처분하였다. 현재는 저축을 하며 자영업으로의 전환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카렌의 경험에서도 나타나듯이 급전적 과제가 장기적 비전으로 전환되는 순간 종사자들의 지속은 적극적지속성으로 전환되게 된다.

어떠한 강제적 형태의 법적, 채무적 굴레도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 카렌을 통하여 확인한 계약서에도 근무기간에 대한 강제적인 조항은 없었고, 업무의 종료를 쌍방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 중 미카와 주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언제든지 현재의 일을 그만 둘 수 있다고 말했다. 미카는 양육비를 이유로 어려움을 표했고, 주리는 현재의 일이 싫지 않으며 다음 일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구 참여자 중에 가장 오랜 시간 성풍속점에 종사한 카렌과 미카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이야기 하였고, 소라의 경우는 아기를 위해서 분발하고 있는 자신이 대견하다고 말하였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의 수익 이상의 다른 일을 찾기가 힘들다는데 동의하고 있었고, 미카, 소라, 노아, 미이의 경우에는 낮에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다. 즉, 종합해보자면 적어도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수동성 보다는 적극성이 더 두드러져 보

向および問題 一半構造化面接の質的分析と心理検査から一”, こころの健康, 2014; 제29권, 제1호, 77-86면.

이는 상황이었다. 본 문화기술지에서는 적극적 경향이 많이 포착된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그 이상의 수동적 층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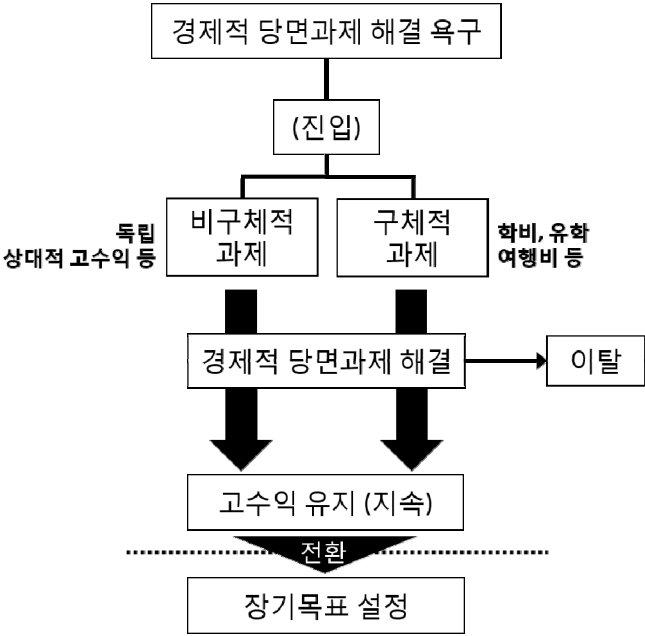
경제적인 부분을 설명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부분은 시간에 비례하는 수익의 감각이 구체적이고 확실하다는 점이다. 카렌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도 그러한 점은 잘 드러난다.

“가슴과 눈을 성형하고 지방흡입을 하는 데 300만 엔 정도가 들었어요. 그 후에 손님은 3배정도 늘었고 투자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었죠. 40분 코스에 9천 엔 정도이니, 조금만 열심히 일하면 3개월이면 300만 엔은 금방 갚아지는 거죠. 저는 새로운 도구로 그 같은 시간에 그 이상의 벌이가 가능해지는 거지요.”

연구 참여자들은 일관되게 시간과 보수에 대해서 상당히 뚜렷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어느 정도 벌이가 되며, 그것을 통하여 어떤 소비가 가능한지를 모두들 계획적으로 계산해 내고 있었다. ‘투자’에 대한 ‘산출’을 구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단, 이것이 앞서 이야기한 지속의 문제 있어서는 고수익을 위한 또 다른 단기적 목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시간과 보수 사이의 치환은 정확하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장시간의 시계열에 둘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시간과 자신이 가능한 서비스의 강도로 자신들의 시간의 가치를 일상적으로 계산해내고 있었으며, 그렇기에 오히려 여유시간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업무가 끝난 이후의 자신들의 여가에 대해서도 시간에 상응하는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자주 관찰되었다. 다양한 정보 제공자로부터 수집된

사례에서 밤늦은 술자리, 콘서트 장에서의 대량의 기념품 구매, 고급 렌트카 대여 등 자신들의 여유에 투자하는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업무시간 동안의 여유는 자신들에게 시간에 대한 가치로서 환산되고 있었고 그렇기에 그에 맞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짧은 문화기술지의 묘사에서 모든 사례를 담을 수 없고 또한 제한된 자료라는 한계가 있지만, 경제적인 동기로 성풍속점에 진입한 경우 <그림 1>과 같은 시계열적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림 1> 성풍속점 진입 이후의 흐름예상도

3. 자기인식: 상품이자 장인

성풍속점 종사자들의 일상을 이해해가다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품’과 ‘장인’이라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성풍속점이라는 하나의 큰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서로서로는 자신이 제공 가능한 섹슈얼리티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신체부위, 플레이,³⁶⁾ 시간, 감정으로 다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도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에게 있어서 신체는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의식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 있어서 도구는 신체 전체에 대해서가 아닌 각 부위에 대한 묘사로서 등장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입, 가슴, 엉덩이, 다리, 손, 성기 등 각 신체의 부위들을 세분화된 도구들로 취급하며 스스로를 각각의 도구들로 구성된 하나의 조합체로서 표현하고 있었다. 각 도구들도 좋고 나쁨, 적절함과 비적절함의 등급과 구별이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손을 주특기로 하는 사람들은 관리가 생명이야. 난 손 쪽은 취급하지 않지만... 사실 손은 기본 장비라기보다는 옵션에 가깝지만, 일단 제대로만 장착되면...(미이)”, “한 번은 도구³⁷⁾에 병이 들어서 물질 같은 게 잡혔는데, 치료기간 동안에 다행히 다른 도구들로 잘 넘어갔지, 그리고 보면 역시 도구는 다양한게 좋아(소라).” 신체의 각 부분들

36) 일본의 성풍속점에서 사용되는 용어. 각종 성적인 행위의 종류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37) 이때의 도구는 성기를 지칭한다.

은 모두 제각각의 도구로서 취급되고 있고, 그 중에 자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로서 파악되고 있었다. “섹스는 화폐대용”³⁸⁾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플레이라는 부분이다. 플레이는 시간과도 함께 연결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플레이의 분류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이 있었고, 각 분류들은 다시 한 손님에게 어느 정도 오래 제공할 수 있느냐는 시간문제로 세분화 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간의 담화 형태였던 집단면접에서도 여러 진술들을 통하여 나타났다. “주리는 매트가 안되니까...”, “허슬도 허리 밑으로는 힘들어.,” “돈을 더줘도 플레이는 20분이 한계.” 등의 다수의 진술들은 종사하는 업종 내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플레이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그것이 자신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또 한 가지는 감정이라는 부분이다. 카렌의 다음의 진술을 통해서 상품적 인식으로서의 감정을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혼반(本番)³⁹⁾은 어디까지나 패키지 중 일부예요. 손님이 방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행동 하나하나가 식당으로 치자면 전채요리부터 디저트까지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 혼반은 메인요리가 아닐 때도 있어요. 옷을 벗기는데도, 씻기는 순서도, 대화까지도 전부. ‘사시스세소 법칙’⁴⁰⁾ 같은것도 마찬가지예요. 문 하나만 넘어오면 다른 세상을 만

38) 수디르 벤카테시, “괴짜사회학”, 김영선 역, 김영사, 292면.

39) 성풍속점에서 ‘섹스’를 지칭하는 용어.

40) 일본어 히라가나 사(さ)행의 사시스세소(さしすせそ)가 문두에 오는 말들을 활용해서 남성을 칭찬하고 추켜세우는 화법으로, 성풍속점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기본적인 화술 중 하나이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역시!(さすがですね!)”, “잘 몰랐어요!(知らなかった!)”, “대단해요!(すごい!)”, “센스가 좋네요!”(センスいい!), “그런거였어요?(そうなんですか?)” 등이 있다.

들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손님's 체형을 보면서 어디가 콤플렉스인지도 찾아내고 그에 맞춰서 플레이도 하고 대화도 하고. 70분짜리 90분짜리 사랑을 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연인처럼 느껴질 수 있는 풍속양일수록 약간 못생기고 도구가 좀 그래도 오히려 넘버원이 되거나 다시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이것도 각각 다 개인차가 있어서 절대 이렇게 안되는 사람도 있고, 완벽히 연기가 되는 사람도 있는거죠.”

카렌은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한 접촉이 오히려 주가 아닐 때도 있음을 자주 설명하였다. 아무런 성적인 접촉 없이 이야기만 나누러 오는 손님, 단지 머리를 감기고 말리고 빗질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손님, 집안 사정에 대한 상담을 청하는 손님 등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때는 30,000엔이 넘는 비용을 내고 90여분 간을 그렇게 보낸다고 하였다. 미이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자신이 없다고 하였으며, 신체나 플레이 쪽을 더 봐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류영진은 이미 일본에서는 상호작용 속의 감정 자체가 하나의 세분화된 상품이 되어 소비로서 충족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한다.⁴¹⁾ 이러한 소비 양상은 시각적인 기호뿐만이 아니라 의사(dummy)연애적인 호의나 동경, 목소리, 말투, 몸짓까지 모두를 포함하며, 이것은 단순한 패티시를 넘어서 시장원리 속에서 구성되는 데이터베이스적인 소비이다.⁴²⁾ 이러한 의식은 실제 그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있어서도 충분히 인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은 인간의 아이덴티티의 정의와 표현 방식

41) 류영진, 앞의 논문, 2016, 131-144면.

42) 류영진, “아즈마 히로키(東浩紀)의 데이터베이스 소비론과 한국소비문화에의 시사점에 대한 탐색적 고찰”, 『사회사상과 문화』, 제18권, 제3호, 2015, 193면.

을 ‘연극학적 방법론’으로 표현한 바 있다. 고프만에 의하면 개인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각 상황에 맞추어 정의하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타인하게 발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자신이 발신하고자 하는 자아를 적절히 연기해내지 못하면 개인은 해당 무대에서 배제되고 스스로도 혼란을 겪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성품 속점 종사자로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상품적인 것들을 동원하고 있었다. 고프만의 은유를 빌리자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일치와 극적실현을 위해서 동원되는 ‘연극소품’이라고 할 수 있다.⁴³⁾ 자신이 가지고 세팅한 요소들에 걸맞게 자신의 전면이 확정되는 것이다. 카렌이 말한 패키지라는 표현처럼 종사자들은 자신들을 하나의 전체적인 상품 꾸러미로 인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자기 인식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장인’으로서의 인식이었다. 사실 일본이라는 문화에 있어서 장인이라는 개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유승호와 선원석에 의하면, 일본에서의 장인이라는 의미의 쇼쿠닌(職人, 직인)이라는 발상은 이미 일본사회의 일상에 내재(embedded)되어 있으며, 직인들의 의식은 상위해석수준(high construal level)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⁴⁴⁾ 일본에서 장인의 개념은 단순한 베테랑, 전문가, 숙련자를 넘어서는 자긍심을 가진 상징적인 존재이다.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자신이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들이 상당히 상위의 것들이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도쿄나 삿포로 등 유명 유흥도시들의

43) 어빙 고프만, 자아표현과 인상관리-연극적 사회분석론, 김병서 역, 경문사, 1987, 7-16면. 고프만은 자신의 자아를 공연하는 전면(front stage)에 있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구성되는 요소로 무대장치, 외모, 몸가짐을 들고 있다.

44) 유승호, 선원석, “장인 문화에 대한 해석적 접근-일본 모노즈쿠리 쇼쿠닌의 일과 삶”, 『인문콘텐츠』, 제32호, 2014, 277면.

종사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실력을 강조하거나, 매너가 없거나 신사적이지 않은 손님은 자신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환불조치하고 받지 않는다는 진술, 자신의 이름이 붙은 서비스 이름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신체적인 매력만으로 어필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실격이라는 표현 사용, 단순히 사정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환희에 이르는 단계를 모두 컨트롤해야 한다는 진술, 자신의 경험을 경력으로서 살려나가고 싶다는 진술 등 다수의 진술에서 그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 중 일부는 다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接客이나 플레이에 대해서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도 있었고, 교육용 DVD를 발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 쪽 눈을 벌에 쏘여서 완전히 흰자위 밖에 남지 않은 손님이 온 적이 있었어요, 결국 자신은 결혼도 못하고 혼자 지내다 한 번씩 가게로 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안타깝게 느껴져요. 정말 많아요. 부인과 사별한 중년. 온몸이 화상으로 오그려 붙은 남자... 사실 보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카렌)”

“잇몸이 검고 입 냄새가 아주 심한 손님이 온 적이 있어. 배도 많이 나왔었지. 여자 친구도 없고 결혼도 못했고, 인터넷에서 나를 지명해서 가게에 온 거야. 처음 만난 순간 이 사람은 어딘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바로 알았어. 이 일을 오래하면 입 냄새 만으로도 알게 되고, 피부의 거칠함이나 사정 후에 정액 색깔만 봐도 몸 상태를 알게 되거든. 그래서 정중히 거절을 했어. 나도 내 몸이 도구인데 도구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지만... 사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었지... 어디 어디 아마 분명히 좋지 않을테니 병원을 가보라고 했어.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만나자고... 기다리고 있겠다고.(미카)”

스스로를 쇼쿠닌이라고 위치 지우며 관련된 진술이 등장할 때 늘 함께 이어져 자주 등장하게 되는 진술들이 위와 같은 유형의 진술들이었다. 두 명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높은 수준의 자기지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장인으로서의 인식을 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의 사례에서는 그다지 관찰되지 않는 경우였으며, 오히려 “너무 싫다”, “혐오스럽다” 등의 부정 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종사자들이 가지는 장인으로서의 인식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프라이드면서 동시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미부여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두 차원의 자기 인식은 종사자들에게 있어서 일정 부분씩 드러나고 있는 상태였다.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서 살펴본 성품속점이라는 환경은 장인으로서의 개인이, 그대로 뒤집혀 다시 상품으로서 존재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쪽의 자기 인식이 더욱 도드라지는 경우가 존재하였고, 그것이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서 그들이 보여주는 문화적인 패턴에도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앞서 나왔던 ‘실격’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장인으로서의 인식이 강한 부류에 있는 종사자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반대로 상품으로서의 인식이 강한 종사자들은 “그래도 결국 언젠가는 그만 뒤야 해. 그러니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최고야(노아)”, “배부른 소리”, “자랑 할 일은 아니잖아” 등으로 평가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었다.

장인으로서의 인식이 강한 경우에는 자신들의 업무에 대하여 일종의 높은 직업의식이 존재했고, 성품속점 종사자로서의 ‘품속양’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단단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히려 이들에게 사회적 약자로서의 프레임, 구원 대상으로서의 접근을 하는

순간 이들은 역으로 자신들이 왜 그런 대상인지를 반문하며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상품으로서의 인식이 강한 경우에는 대부분 단지 성풍속점을 짚은 기간 동안 원하는 금전적 대가를 위해 일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고, 되도록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품적 가치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별히 프라이드를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인 낙인을 두려워하기도 했다. 흔히 사회적 약자로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로서 각종 미디어나 연구에서 부각되는 층은 상품으로서의 인식이 강하지만 그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두 가지의 자기 인식이 거의 대등하게 공존하고 있는 구간에 있는 종사자들이 대다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의식은 일상과 사건 속에서 어느 한 쪽으로 저울추가 움직이며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손님과의 대면 등으로 장인으로서의 인식이 강해지기도 하고, 상품으로서의 인식이 강해지기도 한다. 업무 상황과 관계없이 비업무 중인 일상에서 금전적인 필요(월세, 적금일, 각종 법률 위반 범칙금 납부 등)가 높아지게 되면 상품으로서의 자기 인식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사실 두 가지 인식이 거의 병존하는 형태에 있는 종사자들은 가장 다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전면에 드러나지 않으며 포착되기 어려운 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으로서의 이해도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이 업종을 지속할 생각도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기에 특별히 외부에 자신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후 자신이 원

하는 어떠한 지점에 도달 하였을 때 사회로 복귀하고 종사자로서의 경험과는 단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도 성풍속점의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대부분 주변에 자신이 성풍속점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하고 성풍속점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보통’의 사람이 될 수 없다면 그것은 아주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도 카렌, 노아, 미이는 주변의 몇몇 지인들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자기 인식은 어디까지나 스스로를 향한 정의이자 확인일 뿐 외부와의 소통에서까지 이를 통용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다. 앞서 차용했던 고프만의 은유를 다시 빌리자면 무대의 전면과 후면 사이에는 철저한 관객격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고프만도 지적하고 있지만 이러한 관객격리는 자신의 전면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즉,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유지시키기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⁴⁵⁾

4. 불안요소

종사자들이 느끼는 다양한 고민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존재하고 있었기에 유형화를 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 진입이유, 지속이유, 연령, 현재 환경, 교우관계, 질환상태 등 각 요소들의 조합에 따라서 고민들은 다양한 결(grain)로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부각되며 많은 종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몇 가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성풍속점 종사자들이 불안감을 드러내는 주된 주제들은 미래에 대한 것들과 연결되는 지점이 많았다. 연구 참여자 중 미카, 소라,

45) 어빙 고프만, 앞의 책, 10~11, 28면.

노아, 주리는 자신들이 성풍속점의 종사자로서 언제까지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늘 불안하다고 했다. 특히 40세가 되는 시점이 되면 스스로 큰 전환기를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떠한 형태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정확한 상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었고 그 희미함이 종사자들을 불안으로 이끌고 있었다. 주리는 “여기 일을 그만두게 되면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하고 생각하는 순간 잘 모르겠고 손을 놓게 되어 버려”라고 말하며, 미래상을 그려내는 것에 어려움을 표했다. 미이는 “새로운 일을 하게 되더라도 지금 일을 병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그 이유로 수익이 현재 만큼 되지 못할 것이며 자신의 생활수준이 퇴보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앞서 지속성에 대한 기술에서도 알 수 있었던듯이, 고수익이라는 그 자체에 묶여 있었던 종사자일수록 특정한 목표 설정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에 따라 부정확한 미래상에 따른 불안감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은 아기가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기가 더 커서 주변 돌아가는 걸 알만한 나이가 될 때 즈음이면 다른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걸 모르겠어. 무엇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도 잘 보이지 않아. 다시 취직활동을 한다고 해도 학력도 경력도 없는 상태에서 쉽지 않을 것 같고. 네일도 너무 오래 쉬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었고. 어느 정도 아이가 커버리면 그에 적절한 수익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미카)”

미카의 진술에서도 단적으로 알 수 있지만 특히 싱글 마더의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신의 성폭속점 종사에 있어서 자녀를 의식하게 됨에 따라 일을 그만두게 될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음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중요한 불안요소는 수익 자체의 감소라는 측면에 있었다. 물론 성폭속점은 여러 번 강조되었듯이 여타의 다른 업종에 비하면 고수익이 가능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 가치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각 업소에서 손님 1인당 받는 수익이 2년 전에 비해서 적게는 5,000엔에서 많게는 8,000엔 정도 감소 한 상황이었으며, 특히 점포형 업소들의 경우는 더욱 그 하락폭이 심하다고 했다. 이는 성폭속점이 늘어남에 따라 가격경쟁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금액이 떨어지는 부분만으로 가치 하락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예전에는 손님들이 그냥 정해주는 풍속양과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선택을 너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이제는 매일매일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고 인사말을 쓰고...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날 상대한 손님에게 감사 메시지 써서 블로그에 올리고... 접대가 마음에 안들면 안내 사이트에 업소 이름을 들먹이며 클레임을 걸고... 덕분에 우리는 누가 볼지 모르는 인터넷에 자신을 공개하고,⁴⁶⁾ 두 배의 시간을 쓰고 두 배의 신경을 써야 하지만 받는 돈은 점점 더 떨어지고만 있어요.(카렌)”

카렌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성폭속점 종사자들은 일상적으로

46) 자신의 얼굴을 공개할 것인지는 선택에 달려 있다. 보통은 자신의 신체 부위 일부를 사진으로 올리고 코멘트를 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자신의 업무에 실제 업무 이외의 자기 마케팅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할당해야 하는 시간들이 늘어났고 그에 따른 심적 부담감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신체가 그대로 세분화된 도구이며 다양한 측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시간과 금전 사이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구체화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즉,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가치하락은 종사자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가치하락’이라는 인식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⁴⁷⁾

“이렇게까지 하고 이 이돈”이라는 것에 너무도 짜증이 난다는 카렌과 “온 몸이 육신거리는데도 돈은 어제랑 오늘 받는 돈이 그대로 일 때” 한숨이 나온다는 미카의 진술들은 가치하락에 대한 종사자들의 공허함과 불안을 잘 보여준다. 가치하락에 대한 불안은 앞서 설명한 또 하나의 불안 요소인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접점을 이루게 되면 부정적 상승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상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경제적 가치가 체감 상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것은 종사자들로 하여금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것이다.

성풍속점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섹스’에 대해서도 불안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의 불안은 업무 중의 섹스가 아니라 업무 외에서의 섹스에 관한 것이다. 종사자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섹스를 즐겁게 나눌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고독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미이는 현재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유일한 연구 참여자였지만, “남편

47) 이러한 불안에 대한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사자들의 경제적 불안은 착취의 문제가 아닌 상품적 가격의 문제로 치환되어 있다. 철저한 상품화를 시도한 일본적 자본주의와 그것이 체화된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의 섹스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서도 “남편과 즐겁게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계속 남편의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스스로를 느낄 때 너무 싫어진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도 종사자들은 “마치 배역에 빠진 배우 같아(노아)”라고 하면서 일에서의 자신의 섹스를 어떻게 자신의 일상에서의 섹스와 분할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 小澤는 “특수하고 농후한 대인관계적인 성풍속점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섹스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하게 되는 과정이 반복된다”고 하면서, “공과사를 구별하겠다는 강한 의식으로 자신의 업무 수단인 섹스를 자신의 감정과는 분리된 외재화 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한다.⁴⁸⁾ 자신의 신체에서 감각과 감정을 끊임없이 분리시키고자 하는 강박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 이외에도, 많은 종사자들이 실제로 성적 불감증을 앓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일로서의 섹스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의사적인 감정과 연기를 위해서 실제로서의 감각을 억압한 결과 실제 성적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버린 경우인 것이다.

또 하나의 부각되는 불안은 주변과의 고립이라는 측면이었다. “가끔 손님이 이렇게 힘들고 더러운 일을 잘 참고 하고 있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당신은 그럼 그런 더러운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은 건가요? 라고 되물어요. 그때 느껴요.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선. 그리고 동시에 아주 역설적인 손님의 태도를요” 라는 노아의 진술은 종사자들이 업무 중에도 손님들에 의하여 사회적인 낙인을 재확인 하게 될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법적 입장이 상당히 모순적인 것처럼, 사실 일본 사회 내에서 성풍속점은 이중적인

48) 小澤千咲, 앞의 논문, 81면.

시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종사자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성풍속점 종사자들의 출근 상황을 관찰해보면 대부분은 마스크와 안경, 모자 등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앞서 자기인식에 대한 기술 부분에서도 언급했지만 자신에 대한 장인으로서의 직업의식과 외부에 보이는 자신의 모습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는 상황임을 종사자들의 용모에서도 상징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 중 자신의 출신지역 근처의 업소에서 일하는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미카는 자신의 출신지의 동급생들에게 자신이 성풍속점 종사자임이 소문이 났으며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몇몇 종사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변의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신의 업무를 모르기에 그러한 관계가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업무의 틀을 벗어난 상황에서 종사자들은 업무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분리하고 있었다. 카렌은 자신들의 조카들을 만날 때에 혹시 자신의 일에 대해서 들키지나 않을까 언제나 가슴이 조마조마 하다고 하였다. 다수의 종사자들이 성풍속점의 종사와 함께 친족과도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을 관찰결과 알 수 있었다. 미이의 경우도 남편 이외에는 인간관계가 거의 없다고 하였다. 현재적 과제로서 성풍속점 종사자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자신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사자들 사이에서 은어로 쓰이는 용어 중 “미바레(身バレ)”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것은 “미우치니 바레루(身内にばれる, 친인척에게 들키다)”의 준말이다. 이러한 조어는 성풍속점 종사자들의 인적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사자들의 인간관계는 같은 풍속업 내에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방에서 문득 아주 외로울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창문도 없는 방에서 말이에요. 자기만의 시간을 충실히 계획해서 보낼 수도 있지만. 정말 갑자기 문득 고독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보통의. 정말 아주 보통의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략) 풍속업에서 같이 일하는 치에짱(가명)이랑 자주 만나는 편이지만 결국 같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마치고 같이 술이나 마시면서 손님들 뒀담화나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나마도 그때 잠깐일 뿐이죠. (미카)”

개인실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온전히 혼자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견뎌내야 하며, 다양한 고민에 빠질 시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약 6시간 가까이를 개인실에서 보내고 그 이후의 관계들도 성풍속점 종사자들 사이의 관계에서 머무르게 된다면, 종사자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든다는 것은 기회 측면에서도 방법적 측면에서도 점점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혼자만의 시간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위한 파트너나 조언자를 만나는 것이 어렵다고도 할 수 있다.

V. 마치면서

본 연구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일본의 성풍속점 종사자들의 일상의 인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문화기술지라는 연구방법을 통하여 묘사와 분석을 시도하였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일본의

성풍속점 종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일본의 법적 인식과 사회적 인식이 보여주는 차이에 대하여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국가의 법적 인식과 집행하는 경찰의 인식, 그리고 사회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반적인 인식 사이에서 간극을 드러내고 있었다. 법적으로는 금지와 용인이 혼재되어 있으며, 사회문화적으로는 낙인과 용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사회가 반드시 어떠한 입장으로 정리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인식의 차이가 종사자들에게 대해서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의 상품화에 대해서 용인이 존재하는 사회라면 그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추후 사회적인 용인이 있을 수 있어야 하지만 종사자들의 다양한 진술에서도 드러나듯이 사회는 오히려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낙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쉽게 자각한다. 이러한 측면은 만약 성풍속점을 나와 새로운 삶으로 전환을 시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무거운 족쇄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종사자들의 ‘고립’의 문제는 이러한 이중성과도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둘째, 종사자들에 대한 접근을 진입동기에 생애사적인 배경이라는 치우친 관점에서 벗어나, 그들의 현재에 천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것은 외부로부터의 개입을 고려할 경우에는 특히 중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자면, 외부로부터의 틀에 종사자들을 ‘대상자’로서 설정하고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그들의 현재에서 출발하는 내부로부터의 접근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사자들의 진술 속에서도 등장하지만 자신들을 피해자, 빈곤자의 틀에서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었

다.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있는 일본의 성풍속점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성풍속점은 하나의 거대한 문화집단으로서 덩치가 커져 갈 것이며, 그 속에서는 다양한 개인들이 일반성과 특수성 속에서 얽혀져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종사자들은 중층적인 자기 인식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서 다양한 불안들이 표출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걸맞게 다변화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층과 그렇지 않은 층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며, 지원을 곧 요하게 되는 예비군을 계획하는 등의 시도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종사자들이 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여성학 등 다양한 학문들이 섹슈얼리티와 그것의 상품화, 매매에 대해서 논의를 지속해 왔지만 경제학에서는 상대적으로 백안시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는 경제학이 인간의 감정을 외생변수로 취급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측면과 거래관계에 있어서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하지만 일본 사회는(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회에서도 곧) 섹슈얼리티가 이미 재화가 되어버린 사회이며 그에 대한 세분화된 상품화가 아주 철저하게 진화하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미 자본주의가 낳은 '섹슈얼리티 거래'라는 씨앗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학은 성풍속점 종사자들의 업무에 대하여 가치와 경제규모, 업종내의 금전의 순환 시스템, 개인의 미시적 수입과 지출구조 분석 등 적어도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분석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식(성은 거래될 수 있는가? 인권적 측면에서 타당한가? 등)과 법적·문화적 시스템에 대한

실천적인 문제의식(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남성 중심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등)의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 중간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이 여타의 학문들과 연계되며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 가능성을 높여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동시에 폐쇄성이 두드러지는 일본의 성풍속점 종사자들을 다루고 있기에 이를 포괄적이며 개괄적인 차원에서 다루기 위하여 문화기술지라는 방법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큰 상(像)을 그려낼 수는 있었으나 그만큼 구체적인 분석이 추후에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하나의 단서로 하여 일상의 보다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측면들을 분석해 나가는 것을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단행본】

수디르 벤카테시, “괴짜 사회학”, 김영선 역, 김영사, 2009.

어빙 고프만, “자아표현과 인상관리-연극적 사회분석론-”, 김병서 역, 경문사, 1987.

캐서린 하킴, 매력자본, 이현주 역, 민음사, 2013.

【논문】

고정갑희, “매춘 성노동의 이론화와 성/노동/상품의 위계화”, 「경제와 사회」, 제81호, 2009, 112-130면.

권지성, “쪽방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제4호, 2008, 131-156면.

류영진, “상호작용의 상품화 공간으로서 메이드카페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문화사회학회 2013가을학술대회 자료집」, 2013, 144-154면.

_____, “아즈마 히로키(東浩紀)의 데이터베이스 소비론과 한국소비문화에의 시사점에 대한 탐색적 고찰”, 「사회사상과 문화」, 제18권, 제3호, 2015, 187-223면.

_____, “분절화 된 일본의 상호작용 상품에 대한 관찰”, 「한국문화사회학회 2016가을학술대회 자료집」, 2016, 131-144면.

오김숙이, “젠더·노동 프레임과 여/성노동자의 재현·성매매특별법 제정 후 페미니즘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제27권, 제1호, 2017, 18면.

유승호·선원석, “장인 문화에 대한 해석적 접근-일본 모노즈쿠리 쇼쿠닌의 일과 삶”, 인문콘텐츠, 제32호, 2014, 267-283면.

이나영, “여성주의 ‘성노동’ 논의에 대한 재고”, 「경제와 사회」, 2009, 제84호, 132-157면.

이현재, “성노동자들의 인정투쟁과 윤리적 지평의 확장-민주성노동자연대

의 거주생존권/노동권 주장에 대한 인정 이론적 담론화”, 「한국여성학」, 제25권, 제2호, 2009, 73-98면.

2. 국외문헌

【단행본】

蔭山信, “注解風営法Ⅰ”, 東京法令出版株式会社, 2008, 26-27면.

角間惇一郎, “風俗嬢の見えない孤立”, 光文社, 2017.

警察庁, “平成28年 警察白書”, 2017.

——, “平成29年 警察白書”, 2018.

飯田泰之・荻上チキ, “夜の経済学”, 扶桑社, 2013.

矢野経済研究所, “アダルト向け市場徹底研究 2016”, 2016.

Laurel Richardson・Elizabeth Pierre, “WRITING: A Method of Inquiry”, SAGE Publications. 2005.

Louise Spindler, “Interpretive Ethnography of Education at Home and Abroad”, Psychology Press, 1987.

【논문】

菊澤信夫, “生活安全局発足後の風俗環境の変化について”, 「警察学論集」, 第58巻, 第1号, 2005, 82-103면.

小澤千咲, “女性性産業従事者における職業に対する態度の形成および変容プロセス—M-GTAおよび心理検査を用いて—”, 国際医療福祉大学 博士学位, 2015.

小澤千咲・岡野憲一郎, “性産業従事者(commercial sex worker)に見られる心理的傾向および問題—半構造化面接の質的分析と心理検査から—”, ころの健康, 2014, 第29巻, 第1号, 77-86면.

Eva Rosen・Sudhir Alladi Venkatesh, “A “perversion” of choice: Sex work offers just enough in Chicago’s urban ghetto”,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Vol.37, No.4, 2008, pp.417-441.

【인터넷 자료】

나카스관광협회, “<http://www.nakasukankou.com/about.html>”

일본 법무성 법률 검색 시스템 e-GOV,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3AC0000000122&openerCode=1#F”

하보스코프 닷컴(Havocscope), “<https://www.havocscope.com/prostitution-revenue-by-country/>”

<Abstract>

The Study of Ethnography on Everyday Life of workers at Amusement Business Affecting Public Sexual Morals

Ryu Youngjin*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comprehend everyday life and understanding of worker at Amusement Business Affecting Public Sexual Morals. We seem to know sex-related businesses on Japan well but we don't really know it. Amusement business affecting public sexual morals are also in a delicate position where laws are prescribed and not free from social stigma. This research is being described life of workers with inside-approach. So, this research uses the ethnography, which is a qualitative methodology. Hereupon, from January of 2014 until now, workers of sex-related businesses were observed within the wide-range area of their everyday life and gathered various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 depth interviews. The result of the research was analyzed as Economic Motivation, Two types of self-awareness and Anxiety as the three concept. And on the basis of these researched content, the implications was added.

Key Words : Law Regulating Adult Entertainment Businesses, Amusement Business Affecting Public Sexual Morals, Woman Who Works in the Sex Industry, Ethnography

* Institute for Regional Strategy, The University of Kitakyushu. Assistant Professor

